

# 목회자 칼럼

잭슨빌장로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한 조각의 역사, 그리고 한 인연이 남긴 긴 여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976년, 저는 워싱턴 D.C.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잭슨빌 다운타운의 세미놀 클럽 1층에 있던 VIP Restaurant을 인수했습니다. 위로는 클럽 회원들에게 식사를 올리고, 아래로는 길가 손님들에게 미국식 메뉴를 제공했지요. 여기에 오리엔탈 메뉴를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수 큰 종이에 메뉴를 써서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하루는 문 달을 무렵, 창문을 훑어지게 보던 젊은 동양 청년이 들어와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나?” “코리안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하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병대를 마치고 몇 달 전 뉴욕으로 와 과일 도매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상자를 나르다 보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부모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잭슨빌행 기차에 올랐다고요. 주머니에는 기차표 값을 제하고 100달러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마침 저는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 스와니노회와 상의하던 때였습니다. 다운타운의 제일장로교회 채플을 빌려 예배드리기로 하고, 목사님을 청빙할 때까지 제가 임시로 인도와 설교를 맡았습니다. 주 5일만 여는 식당 덕에 주말에는 전교인을 식당으로 모셔 식사를 대접했고, 한국 선원들이 입항할 때면 쇼핑과 관광을 도와주고 병든 이들은 한국인 의사와 연결해 무료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넉넉지 않지만 즐거운 봉사였고, 그렇게 모인 이가 어느새 70여 명. 잭슨빌 한인 300여 명 중 저를 모르는 이가 드물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 청년에게도 “한국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사연을 더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잘 곳이 없다 하기에 우리 집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찾자 했고, 그는 주말마다 찬송가와 주보를 챙기며 성실히 도왔습니다. 며칠 후 일자리를 구했고, 중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더니 곧 운전면허를 따지며 공부해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방마다 빈터에서 운전용 가드렸지요. 결국 200달러짜리 중고차를 구했는데, 장난기 많은 말투와 달리 마음이 순수하고 영리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을 조금 알게 됐으니 뉴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용차”를 몰고 1,000마일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극구 만류했지요. 하지만 그는 “억지로 집을 나섰던 아들이 당당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고, 결국 작은형이 비행기로 내려와 함께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두 형제를 얹혀 두 시간 넘게 삶과 우정, 신앙, 그리고 앞으로의 철학에 대해 나눈 뒤, 윌리엄즈버그와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터널 코스를 일러 주었습니다. 무사 도착 소식이 왔고, 영 청년은 대한항공 뉴욕지사에 취직해 결혼하고 집사가 되었으며, 훗날 애틀랜타까지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고,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제가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나이도, 성격도, 조건도 다르다. 그래도 너의 무모한 출발이 나를 찾아왔고, 짧지만 함께 삶을 나눴다. 한 번 맺어진 관계는 거리가 멀어져도, 소식이 끊겨도, 내 인생의 한 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48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저는 감사와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저는 동생들의 권유로 애틀랜타로 이사했습니다. 영 집사는 “꼭 한 번 빌겠다”며 뉴욕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도 공짜로 탈 수 있는데 굳이 왕복 4일을 운전해 하루 저녁을 함께하자고요. 아마도 그 옛날 ‘용차’로 잭슨빌을 떠나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지난달에도 부부가 차를 몰고 다녀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글은 잭슨빌한인장로교회 초기에 있었던 역사 한 단면을 수필로 풀어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 속에 잠시 머물며, 행복의 파랑새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 봉사하시는 분

임시당회장 정재두 Rev. Chung, Jae Doo

원로 목사 황태준 Rev. Hwang, Tae Joon

반 주 자 김재순 Accompanist. Kim, Jae Soon

## 예배/모임안내

주일 예배 오전11시 본당  
토요일아침예배  
수요저녁예배  
주일성경공부 오전 9:10 제1 교육실

## 2025년도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협력 선교지

밀알 선교회(아틀란타)  
시각 장애인 선교: 영광 장로교회 (한국, 김화자전도사)  
교도소 선교: Smith State Prison(김철식 선교사,조지아)  
페루: 김성일/김성숙선교사  
일본:

## 봉사위원(Ushers/Services)

담당	9/14	9/21	9/28	10/5
안내/헌금	김영숙 / 윤선희			
기도	이중순	박향미	이지원	조혜숙
친교	임정례	김정선	신디캐틀	여선교회

## 지난주 헌금 내역(Offering)      총액: \$2,585.00

주정(Weekly)	11명
십일조(Tithe)	김정선 양재형 김혜정 김동일 김영숙
감사(Thanks)	조혜숙 박장현 정재두 박향미 이정웅 허중호 김금순 김영출 이민구 김동일 무명
선교(Mission)	

## 지난주 출석 통계

주일예배: 30명      토요일예배: 각 가정에서

창립일: 1978년6월5일

2025년 9월 14일  
47권 37호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A Church Growing Strong  
in Peace



#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주소: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전화 904-355-9793

홈페이지: www.jaxkpc.org



# 주일예배[Worship]

인도: 정재두 목사

2025년 9월 14일

경배와 찬양 Praise & Adoration		다함께 Congregation
예배사 Call to Worship		인도자 Liturgist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Congregation
*찬송 Hymn	298장 숙직하신구세주를	다함께 Congregation
*고독문 Responsive Reading	시편145편	다함께 Congregation
회중기도 Prayer		이중순 집사 Deacon. Lee, J.S.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3:19~24 Rom. 3:19~24	인도자/성도 Responsive Reading
말씀 Sermon	은혜와 율법주의 Grace and Legalism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기도 Prayer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찬송 Hymn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함께 Congregation
헌금 Offering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찬송 Hymn	317장 1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Liturgist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Liturgist
*찬송 Hymn	56장 우리의주여	다함께 Congregation
*축도 Benediction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후주 Postlude		반주자 Pianist

\* 표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세요.(Please put offering into the offering box)

# 음악 고독문

## 고독문 (시편 145편)



인도자: 평생토록 하루하루 기리오리 주님이름  
다함없이 다함없이 찬양하리 주님이름

회 중: 어느 자로 짚 수 있나 무엇으로 헤아리랴  
주 하나님 높으시니 찬양받아 마땅하네

인도자: 자자 손손 전해지네 우리주님 크신 업적  
혁혁하신 주의 사역 만대까지 알려지네

회 중: 크신 명성 들었는가 광채 찬란 아니한가  
크신 업적 보았는가 온 천지에 알리리라 (후렴)

인도자: 주 하나님 가시는 길 그 언제나 바르시고  
주님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일 뿐이라네

회 중: 불러보라 불러보라 주님 이름 불러보라  
진심으로 부를 때에 어느 틈에 오시었네

인도자: 주 하나님 경외하며 나의 손원 아뢰이면  
그 언제 아뢰었나 벌써 구원 주시었네

회 중: 주 하나님 사랑하면 굳게 보호 받게 되나  
악인들아 불쌍하다 심판받아 망하리라

다같이: 내 입술아 찬양하라 온백성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님만을 (후렴)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을 하시고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 정재두 목사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은 (206)979-6382 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면담을 원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미리 전화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부터 금주의 가정예배(가나다순서) 정해서 매주 한 가정씩 주보에 사진을 올리고 그 가정의 위하여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송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민구 집사님이 가족별로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니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 주소를 만들기 위한 개별사진도 함께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경과 신앙생활의 여정” 이라는 성경공부가 7주 코스로 등록된 분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1클래스는 5명 이상 12명까지입니다. 주일 아침반은 오전 9시에 시작이 되고 토요일 오전 10시 클래스는 5명 이상 등록을 하시면 개설을 합니다.

5. 교인 전체 카톡 단체 방이 개설되었는데 이곳에 혹시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시다면 서로 조정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개인의 간증이나 좋은 소식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다른데서 받은 사진이나 글을 퍼서 올리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글이나 부정적인 글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주변 정리작업안내  
9월21일 주일 친교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7. 오늘 친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정례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 오늘 친교시간 이후에 탁구를 치실 분은 남아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